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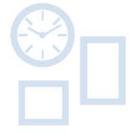
WP 21-27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 특성 분석

이혜민 국토연구원 연구원 (leehm0646@krihs.re.kr)



※ 이 Working Paper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저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저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고, 인용 시에는 저자 및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01 서론	05
02 귀농·귀촌 일반 현황	09
03 귀농·귀촌 베이비부머의 특성 분석	17
04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1
05 결론 및 시사점	43





0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시대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고, 최근 코로나19를 경험하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음(한국고용정보원 2020)

 -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로,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통계청 2020)
 - 특히 1950~1960년대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장년기로 진입하면서 은퇴를 앞둔 상황이기에 고령화 문제는 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베이비부머 세대는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2000년대부터 귀농·귀촌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에 대한 관심 또한 부상하고 있음(김정섭·김종인 2017)

 - 베이비부머 세대는 불안정한 노후 준비 등으로 인해 조기 은퇴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귀농·귀촌과 같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세대임(박시현·최용욱 2014)
 - 도시 내 일자리 부족 등의 경제적 요인과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라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우성호·이성근 2015)
- 도시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시점을 맞이하여 다시 지방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제2의 인생을 꾸리게 하는 귀농·귀촌은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음(마강래 2020)

 -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여 도시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귀농·귀촌 인구 51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함

- 다만 일부 농촌 지역에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귀촌현상 또는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윤영중·박환용 2019; 최원실 외 2020)
- 따라서 귀농·귀촌의 장려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인구가 농촌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시점임

■ 이에 이 페이퍼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가 어떠한 요인에서 귀농·귀촌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전체 귀농·귀촌인과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귀농·귀촌인의 분포 현황 및 특징을 비교·고찰함
- 둘째, 각 지역의 다양한 요인들이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와 비교하여 특징을 분석함
- 이 페이퍼의 결과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공간정책, 주택정책, 복지정책의 대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2) 선행연구 검토

■ 지역 간 인구이동은 소득·취업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의 이동이 주된 원인으로 설명되어 왔으나(노두승·김리영·양광식 2017), 최근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주거환경, 교육, 문화, 의료, 정부 혜택 등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인구이동 영향 요인을 찾고 있음(조미현·송재민 2020)

- 박소현·이금숙(2019)은 직업·가족·교육·주택을 주요 이동요인으로 선정하고 요인별 인구이동 및 인구분포의 시공간적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이동요인별 인구분포의 변화를 예측함
- 이정희·이창수·이상경(2017)은 수도권 6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지표, 거리지표, 주택지표, 경제지표, 도시기반시설지표를 이동 결정요인으로 활용하여 도시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함
- 임동일·황윤진(2017)은 수도권과 강원도 간의 인구이동 추이와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취업·교육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등의 사회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함

- 오은열·문채(2016)는 전라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이동 변화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교육적·사회적 요인을 살펴봄
- 귀농 및 귀촌 인구의 지역 선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귀농인은 농업 여건이 양호한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귀촌인은 주거 및 생활환경의 편리성,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남(송미령 외 2020; 정성지·마상진 2021)
- 우성호·이성근(2015)은 경상북도 6개 시·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의사결정 요인과 지역별 귀농·귀촌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활용함
 - 권오성·여준호(2018)는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귀농 유인에 정책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 박기서·정일훈(2012)은 귀촌한 도시민이 어느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분석하고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환경적, 지방 행정적 등의 지역적 특성이 귀촌 도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
-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연령, 거주지역별 특성과 상관없이 전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이 귀농·귀촌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인의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특성 요인들이 이전에 거주했던 지역에 따라 귀농과 귀촌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했다는 점에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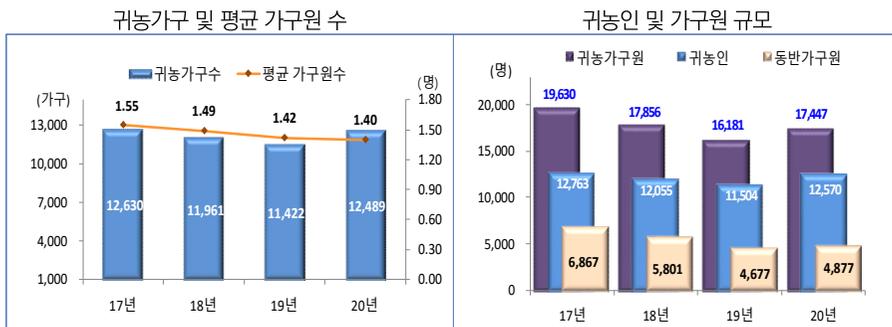
02 귀농·귀촌 일반 현황

1) 2020년 귀농·귀촌 현황¹⁾

■ 귀농 현황

- 2020년 귀농가구는 1만 2,489가구로 전년(1만 1,422가구)보다 1,067가구(9.3%) 증가
 - 귀농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40명으로 전년(1.42명)보다 0.02명 낮게 나타남
- 귀농 가구원은 1만 7,447명으로 전년(1만 6,181명)보다 1,266명(7.8%) 증가
 - 귀농인은 1만 2,570명으로 전년(1만 1,504명)보다 1,066명(9.3%) 증가했고, 동반가구원은 4,877명으로 전년보다 200명(4.3%) 증가

그림 1 2020년 귀농가구 및 귀농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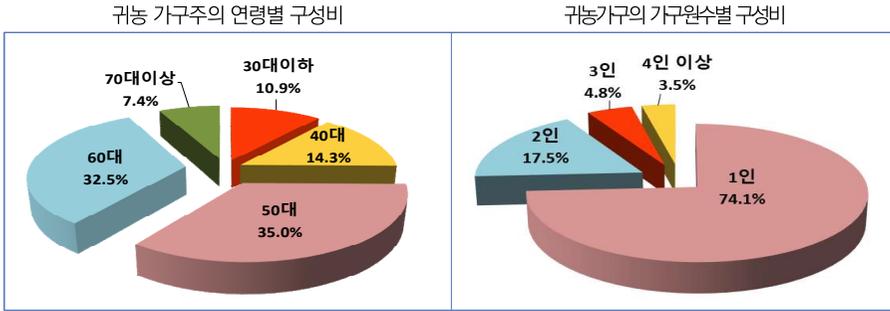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21, 1.

- 귀농 가구주의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67.9%, 평균연령은 55.3세로 나타남
 - 연령대별 구성비는 50대가 35.0%, 60대가 32.5%로 50~60대가 67.5%를 차지
- 귀농가구의 74.1%는 1인가구로 나타남
 - 귀농가구원만으로 구성된 단일가구가 87.2%, 농촌지역 거주자와 귀농가구원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혼합가구는 12.8%를 차지

1)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0년 귀농어·귀촌인통계 결과를 토대로 작성.

그림 2 2020년 귀농 가구주 및 가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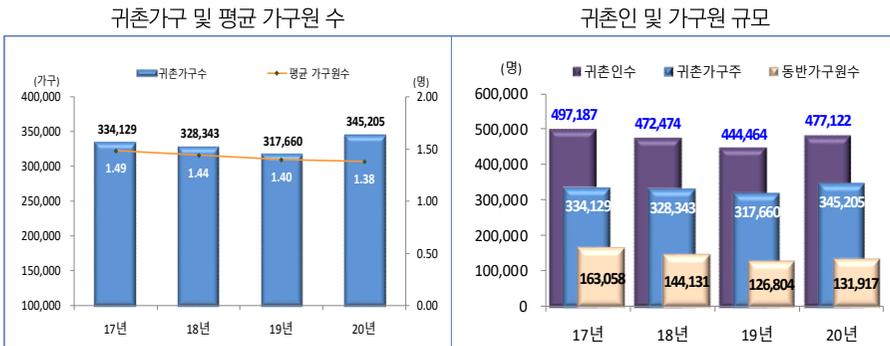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21, 1.

- 귀농인 중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8,625명(68.6%)이고, 다른 직업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겸업 귀농인은 3,945명(31.4%)임

■ 귀촌 현황

- 2020년 귀촌가구는 34만 5,205가구로 전년(31만 7,660가구)보다 2만 7,545가구(8.7%) 증가
 - 귀촌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38명으로 전년(1.40명)보다 0.02명 낮게 나타남
- 귀촌인은 47만 7,122명으로 전년(44만 4,464명)보다 3만 2,658명(7.3%) 증가
 - 평균연령은 42.2세였으며, 연령대별 구성비는 20대 이하가 26.3%, 30대 21.6%, 50대 16.8%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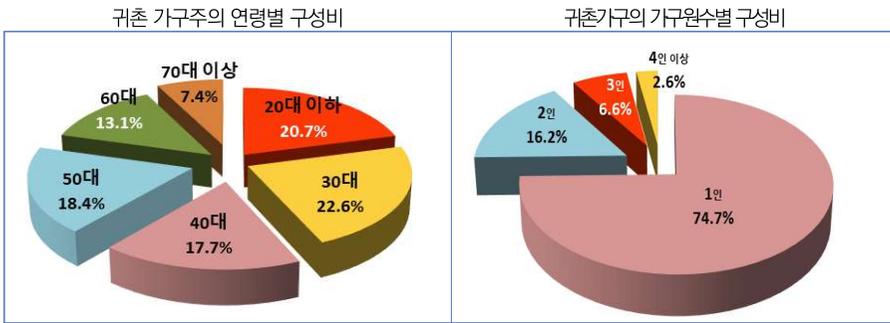
그림 3 2020년 귀촌가구 및 귀촌인 특성



출처: 통계청 2021, 3.

- 귀촌가구의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60.9%, 평균연령은 45.1세로 나타남
 - 연령대별 구성비는 30대가 22.6%, 20대 이하가 20.7%, 50대가 18.4%를 차지
- 귀촌가구의 74.7%는 1인가구로 나타남
 - 귀촌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단일가구가 72.5%,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귀촌인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혼합가구는 27.5%를 차지

그림 4 2020년 귀촌 가구주 및 가구 특성



출처: 통계청 2021, 3.

- 귀촌 전 거주지역은 경기도 12만 1,792명(25.5%)으로 가장 많고, 서울 6만 8,849명(14.4%), 경남 3만 4,821명(7.3%) 등의 순이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전체의 44.2%를 차지
 - 귀촌인 중 시·도를 넘어서 이동한 귀촌인은 51.3%(24만 4,783명)이고, 시·도 내에서 이동한 귀촌인은 48.7%(23만 2,339명)로 나타남
 - 동일 시·도 내에서 시·군 간 이동한 귀촌인은 13만 5,020명(28.3%), 동일 시·군 내의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이동한 귀촌인은 9만 7,319명(20.4%)임

■ **소결**

- 2020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살펴보면, 2017~2019년까지 귀농·귀촌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2020년에는 소폭 상승한 경향을 보임
- 귀농인은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9.3%(1,066명) 증가했고, 연령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50대가 35.0%, 60대가 32.5%로 50~60대가 67.5%를 차지했으며, 평균연령은 55.3세로 나타남
- 귀촌인은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7.3%(3만 2,658명) 증가했고, 연령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26.3%, 30대가 21.6%, 50대가 16.8% 순으로 평균연령은 42.2세로 나타남

2)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 정책의 개요

- 정부는 2009년부터 귀농·귀촌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왔으며,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귀농·귀촌 지원대책을 수립
 -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16년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비전으로 귀농·귀촌 종합계획(2017~2021)을 수립하여 추진함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귀농을 위한 사전 준비 지원, 귀촌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착지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자율 프로그램 지원 강화 예정
 - (신중한 귀농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 지원 강화) 도시민에게 영농교육과 함께 농업 일자리 탐색·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2020: 28백명 → 2021: 6천 명), 농촌생활경험을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2021: 88개 시·군 → 2022안: 100)
 - (귀촌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추진) 귀농귀촌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우선 개편(8월)하여 귀농귀촌 정책·사업의 홍보·접수 중심에서 지역단위 통합정보 제공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예정(2022년~)
 - * 정주여건, 농지, 경제활동·일자리,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 귀농귀촌 희망자의 관심정보를 준비단계·수준에 맞춰 통합 제공(추천 알고리즘 및 GIS 기반)
 - 제2차(2022~2026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하고, 중장기적 정책 추진전략 및 신규 추진과제 마련 예정

■ (주요사업 1)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²⁾

- 사업 목적
 - 지자체의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교육·체험 및 지역융화 프로그램 운영, 임시주거 등 지원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지역 활력 회복
- 근거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2)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mafra/1388/subview.do>, 2021년 12월 20일 검색)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재정리.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 주요 내용
 -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생활 체험 및 주민들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표 1 2020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추진 현황

- 2020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추진 현황(2021.6.21. 기준)
 - ✓ (사업개요) 귀농귀촌 실행 前 도시민들이 농촌에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 제공(주거 프로그램 무료, 연수비 지원)
 - ✓ (운영자 현황) 전국 88개 시군, 104개 마을(귀농형 37, 귀촌형 59, 프로젝트참여형 8)
 - ✓ (운영기간·현황) 2020.3월~11월, 현재 97개 마을에서 운영 중(380가구, 510명 참가)
 - ✓ (참가방법) 귀농귀촌누리집(www.returnfarm.com)에서 마을현황 확인 및 참가 신청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1.

■ (주요사업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³⁾

- 사업 목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 근거 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주요 내용
 - 귀농인이 농업창업에 필요한 농지, 시설 등 마련과 주택 구입·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 은행보다 저금리(2%)로 장기간(5년 거치 10년 상환) 대출(농업창업 3억 원, 주택 7,500만 원 한도)
 - 사업대상자는 농촌이주 전 도시 거주 및 비농업 분야 종사,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등의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필요(2019.7.1.부터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3)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mafra/1388/subview.do>, 2021년 12월 20일 검색)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재정리.

■ (주요사업 3)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⁴⁾

- 사업 목적
 -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 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 지원)
- 주요 내용
 - 임업분야 창업 또는 주택 구입·신축 지원

■ (주요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⁵⁾

- 사업 목적
 -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 주요 내용
 -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
 - 신청(농업인 → 지자체) → 심사(지자체, 농협은행) → 대출(농협은행 → 농업인) 순의 절차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실행

■ (주요사업 5)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⁶⁾

- 사업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4)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mafra/1388/subview.do>, 2021년 12월 20일 검색)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재정리.

5)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mafra/1388/subview.do>, 2021년 12월 20일 검색)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재정리.

6)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mafra/1388/subview.do>, 2021년 12월 20일 검색)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재정리.

-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 주요 내용
 -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 (주요사업 6)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⁷⁾

- 사업 목적
 -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 주요 내용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7)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mafra/1388/subview.do>, 2021년 12월 20일 검색)와 농림수산물 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재정리.



03 귀농·귀촌 베이비부머의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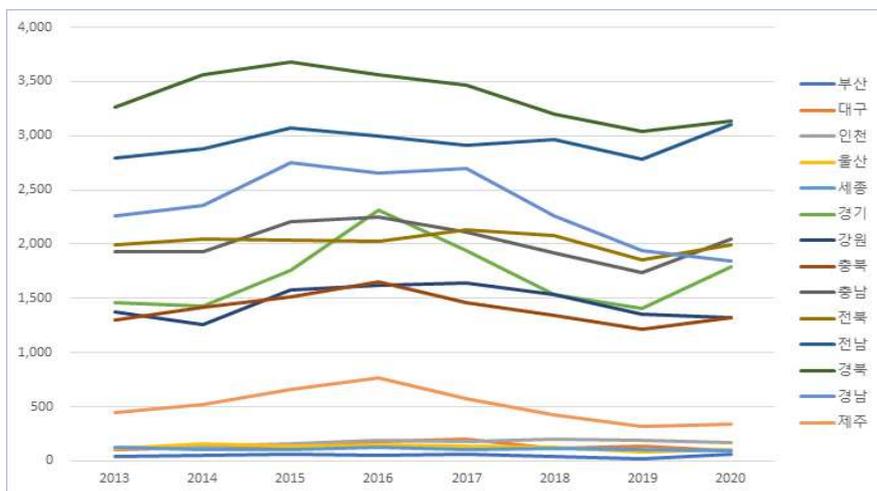
1)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의 귀농 특성

(1) 지역별 귀농인 분포

■ 시·도별 귀농인 분포

- 전국 귀농인 수를 살펴보면 2013년(1만 7,318명)부터 2016년(2만 559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상승 후 2019년(1만 6,181명)까지 하락했으나, 2020년(1만 7,447명) 소폭 상승
 - 2013~2020년 동안 경북(평균 3,365명), 전남(평균 2,938명), 경남(평균 2,348명) 순으로 귀농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2016년에 2,317명이 귀농하며 변화폭이 크게 상승했으나, 2019년까지 하락한 후 2020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5 시·도별 귀농인 분포 현황



출처: 통계청의 귀농·귀촌인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시·군별 전체 귀농인 분포

- 전체 연령대의 귀농인 분포를 시·군 단위에서 살펴본 결과, 2020년은 양평군, 의성군, 상주시, 2019년은 의성군, 고창군, 고흥군 순으로 귀농인 수가 많음
 - 귀농인 수가 많은 지역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2020년은 양평군(237명), 의성군(277명), 상주시(268명), 2019년은 의성군(260명), 고창군(248명), 고흥군(240명), 2016년은 서귀포시(402명), 용인시(389명), 제주시(368명), 2013년은 고창군(359명), 상주시(278명), 창녕군(236명)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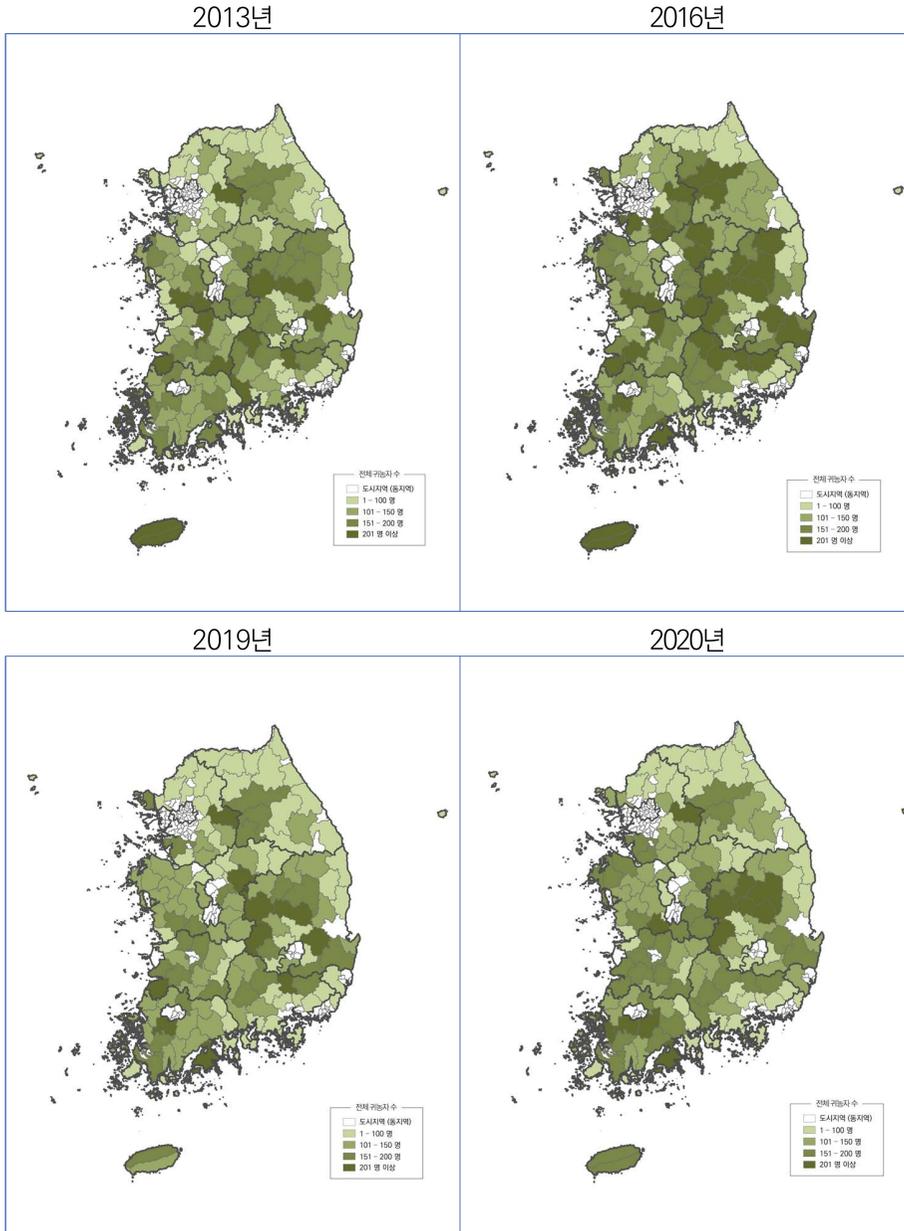
표 2 귀농인 분포 상위 10개 시·군 목록

연도	상위 10개 지역
2013년	고창군, 상주시, 창녕군, 제주시, 하동군, 남원시, 거창군, 논산시, 서귀포시, 영천시
2016년	서귀포시, 용인시, 제주시, 상주시, 창녕군, 고흥군, 거창군, 의성군, 밀양시, 화성시
2019년	의성군, 고창군, 고흥군, 창녕군, 상주시, 김천시, 나주시, 영천시, 양평군, 괴산군
2020년	양평군, 의성군, 상주시, 고흥군, 무안군, 김천시, 안동시, 예천군, 논산시, 나주시

출처: 통계청의 귀농·귀촌인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13-2020년 동안 전체 연령대의 귀농인은 수도권보다는 전통 농업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020년에는 의성군, 상주시, 김천시, 안동시, 예천군 등 경북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2020년의 경우 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양평군, 화성시, 평택시에 귀농인 수가 높음
 - 또한 경북에서는 의성군, 상주시, 김천시, 안동시, 예천군과 전남에서는 나주시, 무안군, 화순군이 공간적으로 인접하여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실제로 경북은 2004년부터 16년 연속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귀농의 경우 50~60대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귀촌의 경우 30대 이하 청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이 특징임(경북일보 2020, 2021년 12월 12일 검색)

그림 6 시·군별 귀농인 분포 현황



주 1: 법에서는 모든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 충족시 동 지역의 일부도 농어촌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동 지역 중 농어촌으로 간주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가 없어 동 통계 작성 시 도시는 동 지역으로, 농어촌은 읍·면 지역으로 간주(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19).

주 2: 농촌지역 중 귀농·귀촌인 수가 0명인 지역은 자료의 집계와 시각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으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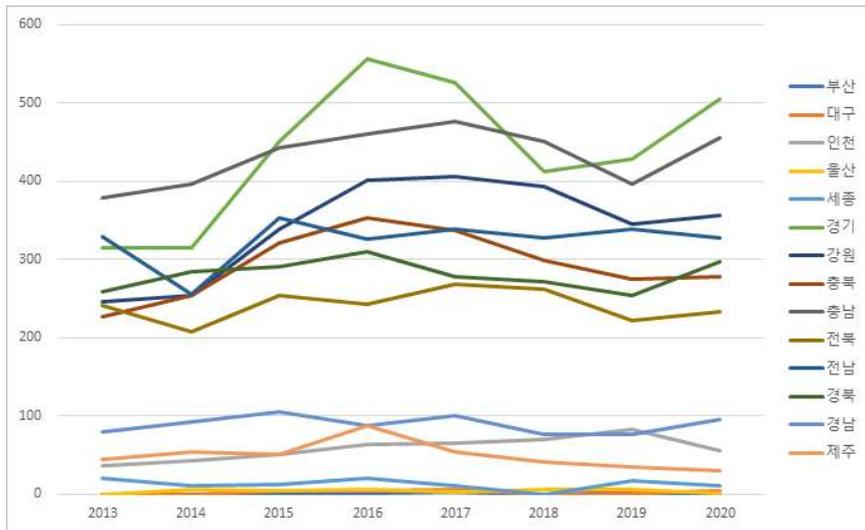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의 귀농어·귀촌인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인 분포

■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의 시·도별 귀농인 분포

-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인은 2013년(2,176명)부터 2016년(2,917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증가 후 2019년(2,474명)까지 하락했으나, 2020년(2,649명)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
 - 2013~2020년 동안 경기(평균 439명), 충남(평균 432명), 강원(평균 342명) 순으로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2016년(2,917명)에 베이비부머가 수도권으로부터 상당수가 귀농하며 변화폭이 크게 상승했으나, 2018년(413명)까지 하락한 후 2020년(505명)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7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의 시·도별 귀농인 분포 현황



출처: 통계청의 귀농·귀촌인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의 시·군별 귀농인 분포

-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인 분포를 시·군 단위에서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홍천군, 태안군, 양평군, 2019년은 강화군, 양평군, 횡성군 순으로 귀농인 수가 많음
 - 2020년은 홍천군(71명), 태안군(68명), 양평군(58명), 2019년은 강화군(75명), 양평군(64명), 횡성군(60명), 2016년은 홍천군(82명), 양평군(73명), 괴산군(72명), 2013년은 고창군(49명), 양평군(47명), 태안군(45명) 순으로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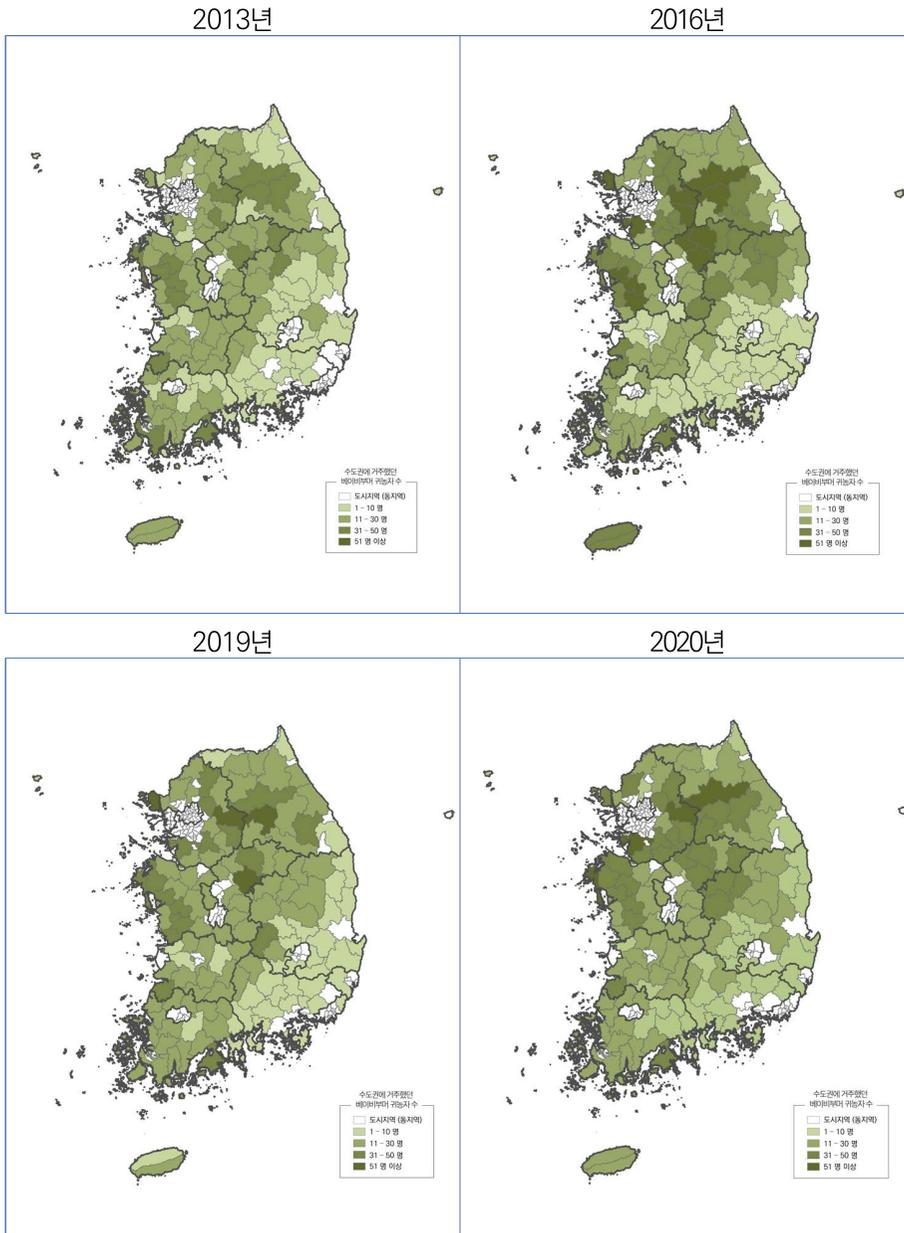
표 3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귀농인 분포 상위 10개 시·군 목록

연도	상위 10개 지역
2013년	고창군, 양평군, 태안군, 홍천군, 횡성군, 부여군, 단양군, 평창군, 이천시, 예산군
2016년	홍천군, 양평군, 괴산군, 화성시, 횡성군, 청양군, 강화군, 음성군, 홍성군, 충주시
2019년	강화군, 양평군, 횡성군, 괴산군, 홍천군, 부여군, 화성시,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
2020년	홍천군, 태안군, 양평군, 화성시, 강화군, 당진시, 괴산군, 횡성군, 평창군, 서산시

출처: 통계청의 귀농·귀촌인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인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귀농인의 분포와는 다르게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귀농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의 경우 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양평군, 화성시에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수가 적음
 - 수도권보다는 전통 농업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던 전체 귀농인의 특징과는 달리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수도권 인근지역일수록 귀농인이 많이 분포함

그림 8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의 시·군별 귀농 분포 현황



주 1: 법에서는 모든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 충족시 동 지역의 일부도 농어촌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동 지역 중 농어촌으로 간주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가 없어 동 통계 작성 시 도시는 동 지역으로, 농어촌은 읍·면 지역으로 간주(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19).

주 2: 농촌지역 중 귀농·귀촌인 수가 0명인 지역은 자료의 집계와 시각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으로 분류함.

출처: 통계청의 귀농어·귀촌인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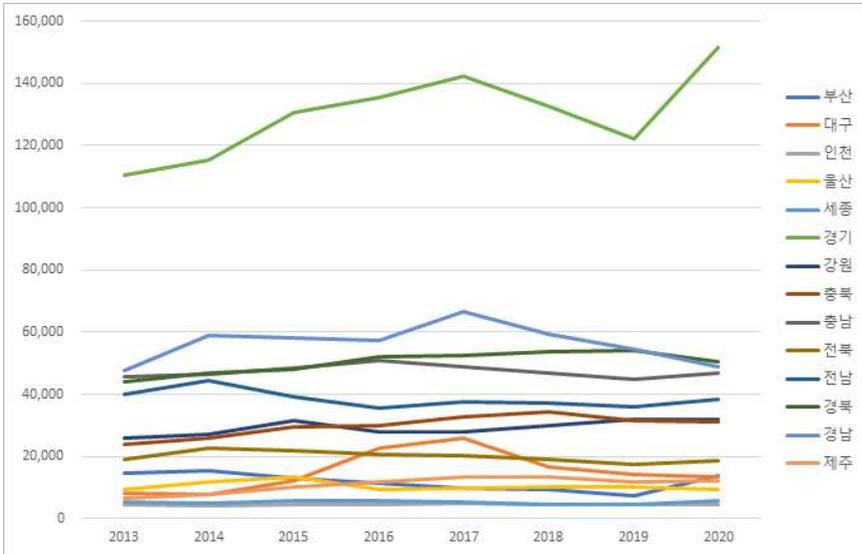
2)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의 귀촌 특성

(1) 지역별 귀촌인 분포

■ 시·도별 전체 귀촌인 분포

- 전국 귀촌인 수를 살펴보면 2013년(40만 5,452명)부터 2017년(49만 7,187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상승 후 2019년(44만 4,464명)까지 하락했으나, 2020년(47만 7,122명)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며, 경기도의 귀촌인 수는 전체 시·도 중 약 3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큼
 - 2013~2020년 동안 경기(평균 13만 98명), 경남(평균 5만 6,381명), 경북(평균 5만 174명) 순으로 귀촌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귀촌인 수는 2017년(14만 2,433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12만 2,058명)까지 하락했으며, 2020년(15만 1,713명)은 정점을 기록함

그림 9 시·도별 귀촌인 분포 현황



출처: 통계청의 귀농·귀촌인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시·군별 전체 귀촌인 분포

- 전체 연령대의 귀촌인 분포를 시·군 단위에서 살펴본 결과, 2020년은 화성시(2만 1,158명), 남양주시(2만 330명), 김포시(6,123명), 2019년은 남양주시(1만 8,937명), 화성시(1만 7,899명), 광주시(1만 6,147명) 순으로 귀농인 수가 많음
 - 귀촌인 수가 많은 지역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2020년은 화성시(2만 1,158명), 남양주시(2만 330명), 김포시(6,123명), 2019년은 남양주시(1만 8,937명), 화성시(1만 7,899명), 광주시(1만 6,147명), 2016년은 달성군(2만 2,783명), 남양주시(2만 1,904명), 화성시(2만 575명), 2013년은 남양주시(2만 2,235명), 기장군(1만 4,764명), 광주시(1만 3,689명)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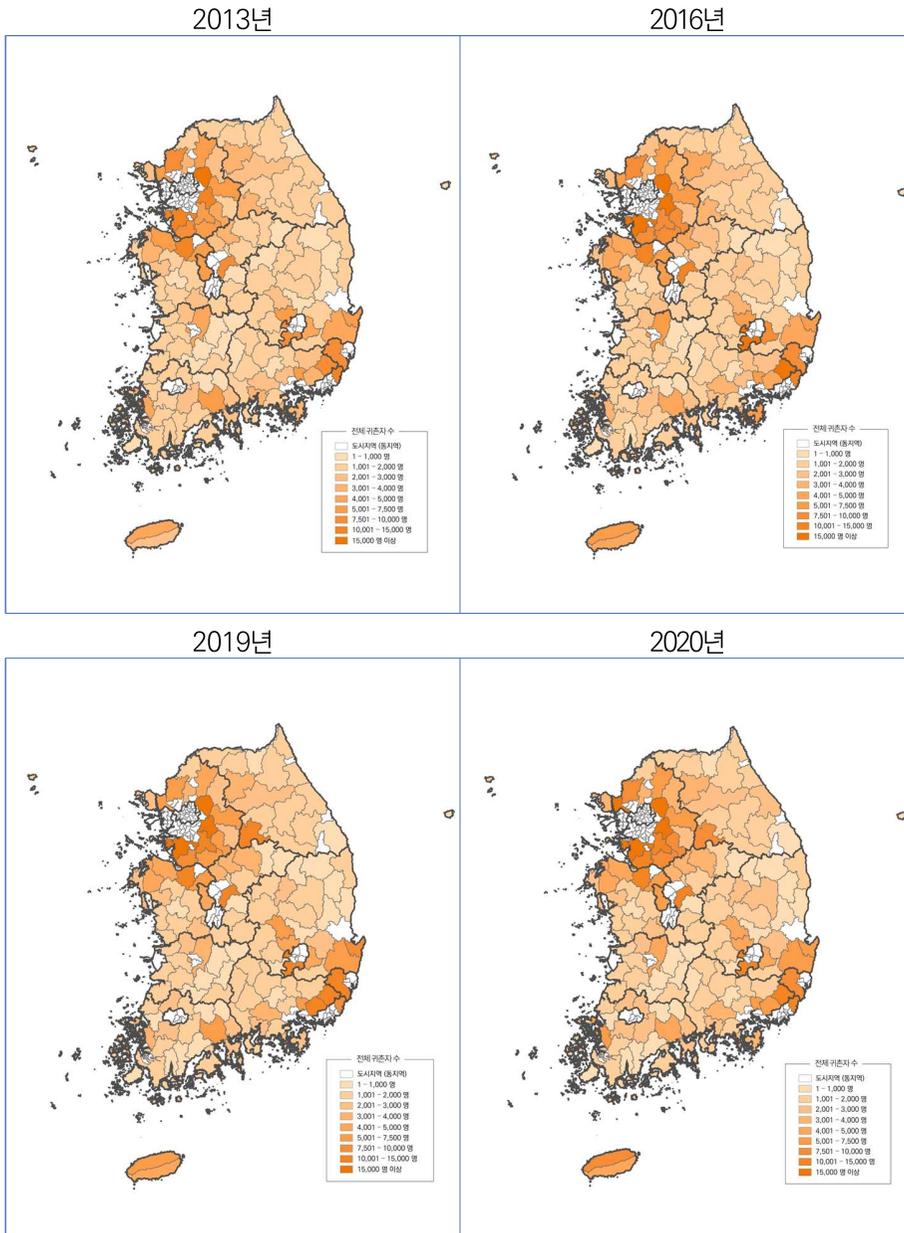
표 4 귀촌인 분포 상위 10개 시·군 목록

연도	상위 10개 지역
2013년	남양주시, 기장군, 광주시, 화성시, 아산시, 양산시, 울주군, 파주시, 평택시, 청주시
2016년	달성군, 남양주시, 화성시, 광주시, 양산시, 아산시, 기장군, 청주시, 파주시, 용인시
2019년	남양주시, 화성시, 광주시, 달성군, 아산시, 청주시, 용인시, 양산시, 김해시, 울주군
2020년	화성시, 남양주시, 김포시, 광주시, 평택시, 기장군, 달성군, 아산시, 청주시, 용인시

출처: 통계청의 귀농어·귀촌인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귀촌인의 분포는 전반적으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인근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의 경우 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화성시, 남양주시, 김포시, 광주시, 평택시, 용인시에 귀촌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아도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그림 10 시·군별 귀촌인 분포 현황



주 1: 법에서는 모든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 충족시 동 지역의 일부도 농어촌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동 지역 중 농어촌으로 간주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가 없어 동 통계 작성 시 도시는 동 지역으로, 농어촌은 읍·면 지역으로 간주(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19).

주 2: 농촌지역 중 귀농·귀촌인 수가 0명인 지역은 자료의 집계와 시각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으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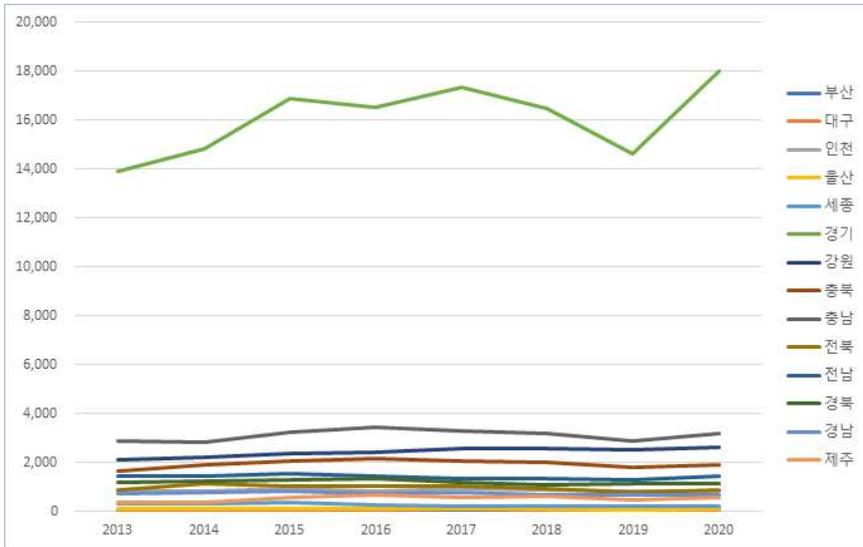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의 귀농어·귀촌인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촌인 분포

■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의 시·도별 귀촌인 분포

-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촌인 수는 2013년(2만6,409명)부터 2017년(3만1,500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9년(2만7,268명)까지 감소한 후 2020년(3만1,616명)에 다시 증가함
- 경기도의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촌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시·도 중 평균 5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며, 이는 이전 거주지역이 수도권인 베이비부머가 멀지 않은 인근 지역으로 귀촌을 희망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
- 2013~2020년 동안 경기(평균 1만6,060명), 충남(평균 3,116명), 강원(평균 2,414명) 순으로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촌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의 시·도별 귀촌인 분포 현황



출처: 통계청의 귀농·귀촌인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의 시·군별 귀촌인 분포

-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촌인 분포를 시·군 단위에서 살펴본 결과, 2019년과 2020년 모두 남양주시, 화성시, 광주시 순으로 귀촌인 수가 많음
 - 2020년은 남양주시(2,522명), 화성시(2,450명), 광주시(2,146명), 2019년은 남양주시(2,245명), 화성시(1,994명), 광주시(1,911명), 2016년은 남양주시(2,622명), 화성시(2,361명), 광주시(2,029명), 2013년은 남양주시(2,708명), 광주시(1,691명), 화성시(1,617명) 순으로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촌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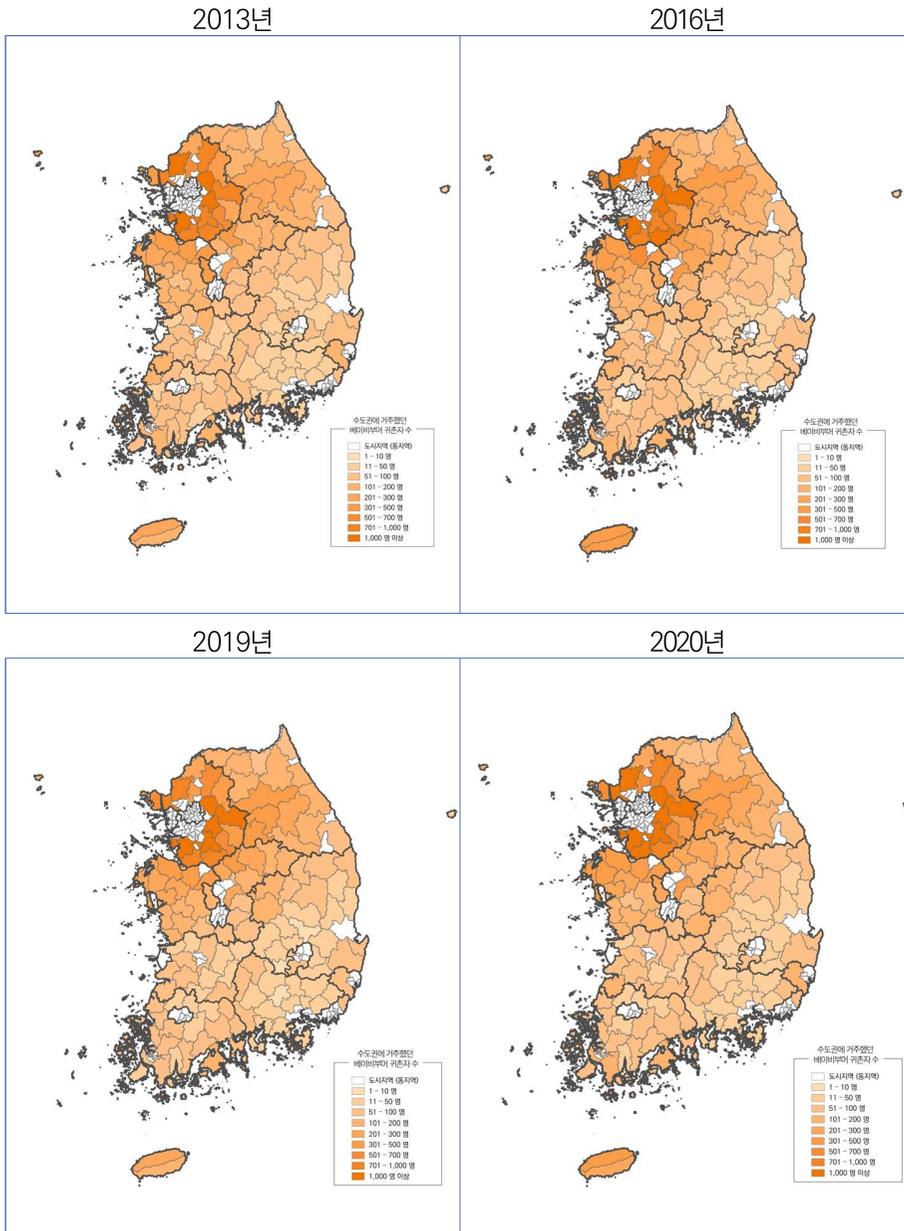
표 5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귀촌인 분포 상위 10개 시·군 목록

연도	상위 10개 지역
2013년	남양주시, 광주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평택시, 용인시, 포천시, 양평군, 안성시
2016년	남양주시, 화성시, 광주시, 파주시, 양평군, 김포시, 안성시, 평택시, 용인시, 포천시
2019년	남양주시, 화성시, 광주시, 용인시, 양평군, 평택시, 김포시, 파주시, 안성시, 포천시
2020년	남양주시, 화성시, 광주시, 김포시, 양평군, 평택시, 용인시, 파주시, 안성시, 포천시

출처: 통계청의 귀농·귀촌인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촌인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는 현상이 확연히 나타남
 - 2020년의 경우 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남양주시, 화성시, 광주시, 김포시, 양평군 등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촌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수가 적음
 - 전체 귀촌인의 분포에서는 부산, 대구 등 광역시 인근에 귀촌인 수가 많은 지역이 일부 존재하였으나,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귀촌인의 수는 현저히 적음

그림 12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의 시·군별 귀촌 분포 현황



주 1: 법에서는 모든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 충족시 동 지역의 일부도 농어촌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동 지역 중 농어촌으로 간주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가 없어 동 통계 작성 시 도시는 동 지역으로, 농어촌은 읍·면 지역으로 간주(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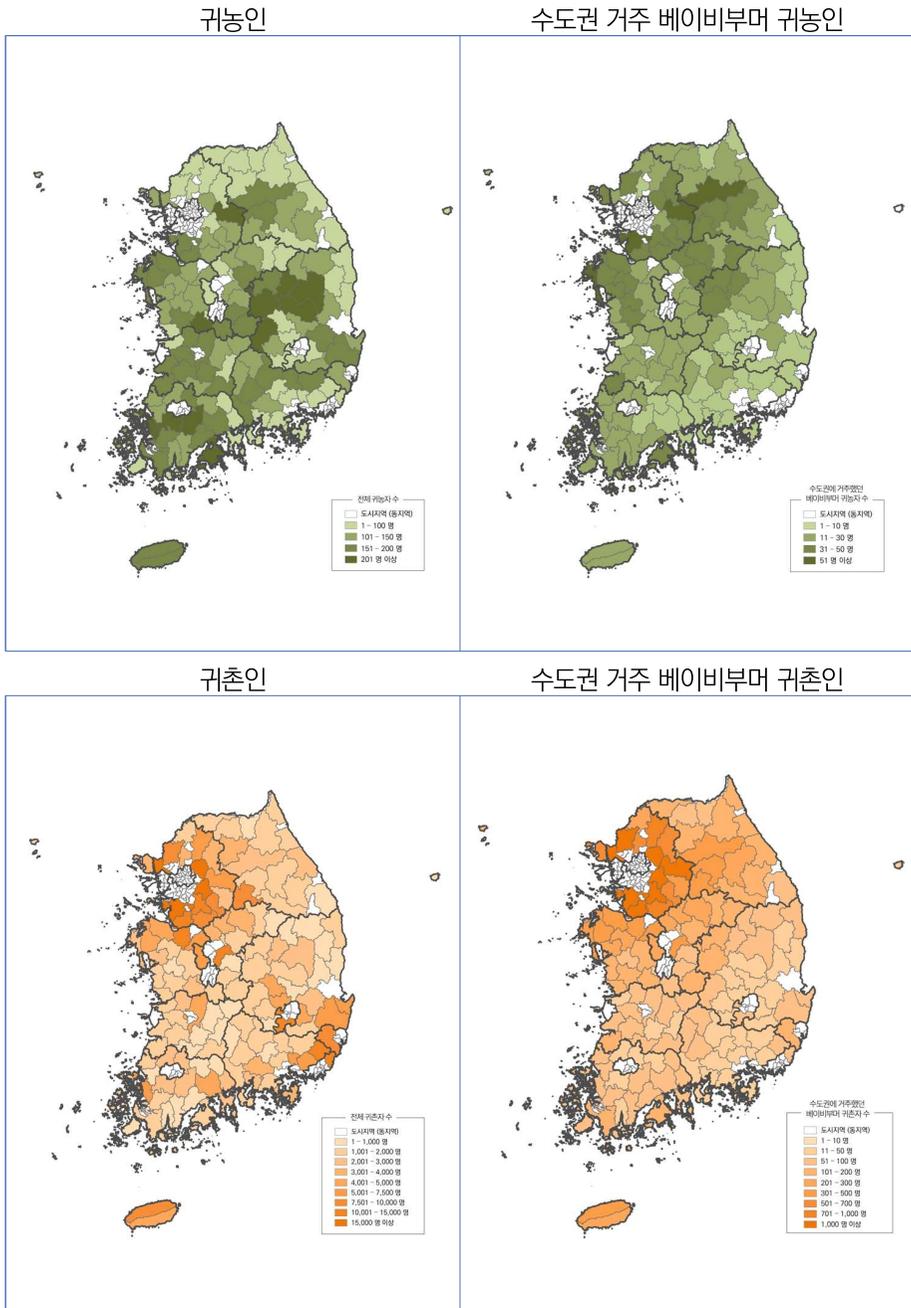
주 2: 농촌지역 중 귀농·귀촌인 수가 0명인 지역은 자료의 집계와 시각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으로 분류함.

출처: 통계청의 귀농·귀촌인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소결

- 2013~2020년 동안 전국 귀농인 수는 2016년(2만 559명) 정점을 이룬 후 하락했고, 귀촌인 수는 2017년(49만 7,187명)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귀농·귀촌인 수 모두 증가
 - 귀농인은 수도권보다는 전통 농업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귀촌인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인근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해 있음
-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인 수를 살펴보면, 귀농인의 경우 2016년(2,176명)을 정점으로 이후 하락했고, 귀촌인의 경우 2013년(2만 6,409명)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2만 7,268명)에 하락했으나 모두 공통적으로 2020년에는 증가
 -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촌인의 수가 타 시·도에 비하여 상당히 많고, 그 비중은 전체 시·도 중 2013~2020년 동안 평균 54%를 차지함
 - 이는 이전 거주지역이 수도권인 베이비부머가 멀지 않은 인근지역으로 귀촌을 희망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인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통 농업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던 전체 귀농인의 분포와는 달리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귀농인이 밀집해있으며, 귀촌인의 경우에도 수도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
 - 2020년의 경우 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양평군, 화성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귀농인 수가 적어짐
 - 귀촌의 경우 남양주시, 화성시, 광주시, 김포시, 양평군 등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촌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수가 적음
 - 전체 귀촌인의 분포에서는 부산, 대구 등 광역시 인근에 귀촌인 수가 많은 지역이 일부 존재했으나,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귀촌인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는 점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남

그림 13 2020년 전체 귀농·귀촌인과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 귀농·귀촌인 분포 비교



주 1: 법에서는 모든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 충족시 동 지역의 일부도 농어촌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동 지역 중 농어촌으로 간주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가 없어 동 통계 작성 시 도시는 동 지역으로, 농어촌은 읍·면 지역으로 간주(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19).

주 2: 농촌지역 중 귀농·귀촌인 수가 0명인 지역은 자료의 집계와 시각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으로 분류함.

출처: 통계청의 귀농·귀촌인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04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분석의 틀

- 이 장의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MDIS)에서 제공하는 귀농어·귀촌인통계⁸⁾를 활용했으며, 지역특성 요인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활용
 - 귀농어·귀촌인통계는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조사기간 중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읍 또는 면’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을 모집단으로 설정
 - 통계자료에서 귀농인은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으로 정의하며,
 - 귀촌인은 귀농인과 귀어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귀어인 및 동반 가구원을 제외한 자를 뜻함
 - 이 페이퍼에서는 귀농어·귀촌인통계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인과 귀촌인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을 수행함
- 시간적 범위는 최근 2년(2019~2020)으로 선정함. 최근 자료 중 2019년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시기이고, 2020년은 다시 상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2개 연도를 모두 분석함
- 공간적 범위는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함

2) 분석 모형

- 분석모형으로는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함. 이는 종속변수 y 의 결과가 0과 1사이의 확률로 나타나며, 조건부 확률 분포가 아닌 이항 분포를 따름
 - y 는 종속변수, x 는 독립변수가 갖는 값을 의미하며, 로지스틱 분포임
 - β_0 와 β_1 은 추정될 모수이며, β_0 는 상수, β_1 은 각 영향변수의 추정계수임

8)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https://mdis.kostat.go.kr/infoData/detailData.do?statsConfmNo=930002&nPage=10> (2021년 12월 12일 검색).

- 로짓변환 g 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g(\pi(x)) = \ln \left[\frac{\pi(x)}{1 - \pi(x)} \right] = \beta_0 + \beta_{1x}$$

- 이 페이퍼의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0과 1로 구분되며, 0은 비수도권에 거주했던 귀농·귀촌인, 1은 수도권에 거주했던 귀농·귀촌인을 의미함. 독립변수는 각 지역의 지역특성 요인을 활용함

- 동일한 지역특성 요인을 갖는 지역이더라도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와 비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가 귀농·귀촌 지역을 선택함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기 위하여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함

- 이 페이퍼의 모형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P_i(\text{이전거주지역수도권여부}) = \frac{\exp(\beta_0 + \beta_1 X_1 + \dots + \beta_n X_n)}{1 + \exp(\beta_0 + \beta_1 X_1 + \dots + \beta_n X_n)}$$

- 지역특성 요인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에서 지역특성 요인을 제외한 모형(M1)과 추가한 모형(M2)의 설명력을 비교함

3) 변수 선정

-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구이동은 지역의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인구이동 관련 변수

저자(연도)	종속변수	독립변수(영향요인)
오은열·문채 (2016)	순이동 인구 (총 전입인구수 - 총 전출 인구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특성: 산업별 취업자 수, 규모별 종사자 수,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 사회적 특성: 공연장, 복지시설, 문화원,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 교육적 특성: 등급별 교육기관, 사설학원, 공공도서관
이정희 외 (2017)	전입률 (인구 천 인당 전입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특성: 전출지와 전입지 인구 규모 및 밀도 • 주택 특성: 주택공급 호수 등 • 경제 특성: 사업체당 종사자 수 등 • 도시기반시설 특성: 종합의료시설, 도시공원연적, 대형판매시설 수
임동일·황윤진 (2017)	전입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교육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박소현·이금숙 (2019)	순이동 인구 (총 전입인구수 - 총 전출 인구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가족, 직업, 교육

출처: 위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귀농·귀촌 인구에 관한 연구에서도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특성을 변수로 활용했으며, 귀농인과 귀촌인은 지역특성요인으로부터 받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

표 7 귀농·귀촌 인구이동 관련 변수

저자(연도)	종속변수	독립변수(영향요인)
박기서·정일훈 (2012)	귀촌 유입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특성: 1차·2차·3차 산업 고용자 수 • 지리적 특성: 대도시와의 거리 • 사회적 특성: 도로 연장, 의사 수, 주택보급률, 주택증가율, 전업농가율, 범죄 발생 건수, 평균 공시지가 • 환경적 특성: 산림면적
우성호·이성근 (2015)	경상북도 귀농 귀촌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압출요인: 경제, 환경, 사회 • 농촌 흡입요인: 경제, 환경, 사회 • 정책적 요인: 정부 지원, 정보 및 기회 제공
권오성·여준호 (2018)	경상북도 귀농 가구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적 특성: 귀농 보조금 합계 • 사회적 특성: 의료기관 병상 수, 주택 수 • 경제적 특성: 1차 산업체 종사자 수, 지역 내 총생산 • 환경적 특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개수

출처: 위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이 페이퍼에서는 귀농·귀촌 이전에 거주했던 지역(수도권 또는 비수도권)의 구분에 따라 각 지역특성 요인이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의 귀농과 귀촌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
 -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학생, 문화기반시설, 의사, 경지면적, 주민등록인구, 고용률, 자가변동률 등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함
 - 또한 일반적으로 인구의 규모가 큰 지역에서 귀농·귀촌 인구의 이동 또한 활발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시 인구 규모를 통제함

표 8 변수의 설정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단위)	의미	출처	
종속 변수	이전 거주지역	귀농·귀촌 전(前)거주지역 (수도권=1, 비수도권=0)	귀농·귀촌인 마이크로데이터 중 베이비부머 세대 (1955~1963년생)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	통계청 MDIS 귀농어· 귀촌인통계	
독립 변수	이동유형	시·도 간 이동		귀농·귀촌 시 이동 범위와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의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	통계청 KOSIS
		시·도 내 이동	시·군·구 간 이동		
			시·군·구 내 이동(ref.)		
	학생	교원 1인당 학생 수(명)		지역의 도시적 성격 중 '교육환경'을 반영하는 변수로 활용	
	문화기반시설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개소)		지역의 도시적 성격 중 '문화환경'을 반영하는 변수로 활용	
	의사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명)		지역의 도시적 성격 중 '의료환경'을 반영하는 변수로 활용	
	경지면적	논과 밭을 포함한 경지면적(ha)		'농업활동 여건'을 반영하는 변수로 활용	
	고용률	고용률(%)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변수로 활용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명)		분석시 지역별 인구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활용		

출처: 제시한 출처 참고해 저자 작성.

4)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의 귀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019년 귀농 베이비부머는 5,456명으로 집계됐으며,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2,474명, 비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2,982명으로 나타남
 - 이들 중 시·도 간 이동을 한 베이비부머는 4,017명, 시·도 내 이동 중 시·군·구 간 이동을 한 베이비부머는 1,022명, 시·군·구 내 이동을 한 베이비부머는 417명으로 나타남
- 2020년 귀농 베이비부머는 6,00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2,649명, 비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3,353명으로 나타남
 - 이들 중 시·도 간 이동을 한 베이비부머는 4,329명, 시·도 내 이동 중 시·군·구 간 이동을 한 베이비부머는 1,183명, 시·군·구 내 이동을 한 베이비부머는 490명으로 나타남
- 지역특성 요인을 추가하지 않은 모형(M1)과 추가한 모형(M2)을 2019년과 2020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특성 요인을 추가한 모형(M2)의 설명력이 더욱 높게 나타남
 - 2019년 M1 모형의 경우 카이제곱값은 599.34, 유의확률은 $p < .0001$ 로, M2 모형의 경우 카이제곱값은 1,032.04, 유의확률은 $p < .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함
 - 2020년 M1 모형의 경우 카이제곱값은 654.21, 유의확률은 $p < .0001$ 로, M2 모형의 경우 카이제곱값은 1,229.63, 유의확률은 $p < .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함
 - M1과 M2 모형의 설명력(R-Square)을 비교해보면, 2019년의 경우 0.104에서 0.172로, M2 모형의 경우 0.103에서 0.185로 높아짐
- 이동유형 변수의 기댓값(exp) 결과에 따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할 경우 2019년과 2020년 모두 시·군·구 내 이동 대비 시·군·구 간 이동은 약 2.5배, 시·도 간 이동은 15.5배가량 높음
 - 2019년 M1 모형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비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와 비교했을 때, 시·군·구 내 이동으로 귀농할 확률보다 시·도 간 이동으로 귀농할 확률이 11.03배 높고, 시·군·구 간 이동이 2.81배 높음
 - 2019년 M2 모형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비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와 비교했을 때, 시·군·구 내 이동으로 귀농할 확률보다 시·도 간 이동으로 귀농할 확률이 15.54배 높고, 시·군·구 간 이동이 2.74배 높게 나타남
 - 2020년 M1 모형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비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와 비교했을 때, 시·군·구 내 이동으로 귀농할 확률보다 시·도 간 이동으로 귀농할 확률이 8.05배 높고, 시·군·구 간 이동이 1.91배 높음
 - 2020년 M2 모형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는 비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와 비교했을 때, 시·군·구 내 이동으로 귀농할 확률보다 시·도 간 이동으로 귀농할 확률이

15.67배 높고, 시·군·구 간 이동이 2.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지역 특성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 경지면적은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가 비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대비 귀농을 선택함에 있어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의 지역 특성 요인을 살펴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경지면적, 주민등록인구, 고용률, 자가변동률 모두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학생 수, 문화기반시설 수, 경지면적, 자가변동률, 주민등록인구는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에게 양(+)의 영향을 미치며, 반면에 의사 수와 고용률은 음(-)의 영향을 미침
 - 2020년 지역 특성 요인에서는 고용률과 자가변동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과 마찬가지로 의사 수와 고용률은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귀농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비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에 비하여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가 많은 지역으로 귀농할 확률이 높음
 -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2020) 보도자료에서 귀농·귀촌 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로 문화·체육서비스를 제시했던 바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반면에 의사수는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데,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은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들로,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들은 이러한 지역을 상대적으로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학생수는 양(+)의 영향을 나타내는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 또한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들로 학생 변수 역시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들이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을 더 선호하고, 지역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 농업과 관련된 경지면적은 주요한 변인 중 하나인 반면, 지역 전반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고용률의 경우 2019년에는 음(-)의 영향을, 2020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표 9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의 귀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9년						2020년					
	Model1(M1)			Model2(M2)			Model1(M1)			Model2(M2)		
	Coef.	(S.E.)	Exp	Coef.	(S.E.)	Exp	Coef.	(S.E.)	Exp	Coef.	(S.E.)	Exp
INTERCEPT	-2.216 ***	0.165	0.11	-2.028 ***	0.311	0.13	-1.932 ***	0.136	0.14	-1.150 ***	0.299	0.32
시·도 간 이동	2.400 ***	0.168	11.03	2.744 ***	0.178	15.54	2.086 ***	0.136	8.05	2.752 ***	0.156	15.67
시·도 내 이동	1.035 ***	0.180	2.81	1.008 ***	0.190	2.74	0.645 ***	0.153	1.91	0.882 ***	0.166	2.41
학생 수				0.090 ***	0.009	1.09				0.048 ***	0.008	1.05
문화·복지시설 수				0.029 ***	0.004	1.03				-		
의사 수				-0.695 ***	0.063	0.50				-1.008 ***	0.070	0.37
경지면적				0.018 ***	0.005	1.02				0.012 **	0.005	1.01
주민등록인구				0.001 ***	0.000	1.00				0.003 ***	0.000	1.00
고용률				-0.018 ***	0.003	0.98				-0.004	0.003	1.00
지가변동률				1.874 ***	0.245	6.51				0.006	0.221	1.01
N	5,456			5,456			6,002			6,002		
-2 LL	6,916.915			6,484.214			7,583.562			7,008.140		
R-Square	0.104			0.172			0.103			0.185		

주: *: p < .10; **: p < .05; ***: p < .01.

출처: 저자 작성.

5)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의 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019년 귀촌 베이비부머는 6만 1,644명으로 집계됐으며,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2만 7,268명, 비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3만 4,376명으로 나타남
 - 이들 중 시·도 간 이동을 한 베이비부머는 3만 2,831명, 시·도 내 이동 중 시·군·구 간 이동을 한 베이비부머는 1만 6,329명, 시·군·구 내 이동을 한 베이비부머는 1만 2,484명으로 나타남
- 2020년 귀촌 베이비부머는 6만 8,19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3만 1,616명, 비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3만 6,578명으로 나타남
 - 이들 중 시·도 간 이동을 한 베이비부머는 3만 5,822명, 시·도 내 이동 중 시·군·구 간 이동을 한 베이비부머는 1만 8,850명, 시·군·구 내 이동을 한 베이비부머는 1만 3,522명으로 나타남
- 지역 특성 요인을 추가하지 않은 모형(M1)과 추가한 모형(M2)을 2019년과 2020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귀농분석과 마찬가지로 지역특성 요인을 추가한 모형(M2)의 설명력이 더욱 높게 나타남
 - 2019년 M1 모형의 경우 카이제곱값은 4,677.63, 유의확률은 $p < .0001$, M2 모형의 경우 카이제곱값은 19,531.44, 유의확률은 $p < .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함
 - 2020년 M1 모형의 경우 카이제곱값은 3,780.87, 유의확률은 $p < .0001$, M2 모형의 경우 카이제곱값은 18,854.60, 유의확률은 $p < .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함
 - M1과 M2 모형의 설명력(R-Square)을 비교해보면, 2019년의 경우 0.073에서 0.272로, 2020년의 경우 0.053에서 0.242로 높아짐
- 이동유형 변수의 기댓값(exp) 결과에 따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할 경우 2019년과 2020년 모두 시·군·구 내 이동 대비 시·군·구 간 이동은 약 2.3배, 시·도 간 이동은 약 6.3배가량 높음
 - 2019년 M1 모형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비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와 비교했을 때, 시·군·구 내 이동으로 귀촌할 확률보다 시·도 간 이동으로 귀촌할 확률이 4.73배 높고, 시·군·구 간 이동이 2.72배 높음
 - 2019년 M2 모형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비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와 비교했을 때, 시·군·구 내 이동으로 귀촌할 확률보다 시·도 간 이동으로 귀촌할 확률이 6.63배 높고, 시·군·구 간 이동이 2.25배 높게 나타남
 - 2020년 M1 모형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비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와 비교했을 때, 시·군·구 내 이동으로 귀촌할 확률보다 시·도 간 이동으로 귀촌할 확률이 3.67배 높고, 시·군·구 간 이동이 2.30배 높음

- 2020년 M2 모형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는 비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와 비교했을 때, 시·군·구 내 이동으로 귀촌할 확률보다 시·도 간 이동으로 귀촌할 확률이 6.01배 높고, 시·군·구 간 이동이 2.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지역 특성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의사 수와 경지면적은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에게 비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 대비 귀촌 선택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침
 - 각 연도의 지역 특성 요인을 살펴보면, 귀농모형과 달리 2019년과 2020년 모두 모든 요인들(학생 수, 문화기반시설 수, 의사 수, 경지면적, 주민등록인구, 고용률, 지가변동률)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의 경우 학생 수, 문화기반시설 수, 경지면적, 주민등록인구, 고용률, 지가변동률은 양(+)의 방향으로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가 비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보다 귀촌 선택에 영향을 미친 반면, 의사 수는 음(-)의 방향으로 나타남
 - 2020년의 경우 의사 수와 경지면적을 제외한 변수들이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의 귀촌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귀농 모형에서 고용률은 음(-)의 영향을 미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귀촌 모형에서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양(+)의 영향을 나타냄
 - 지가변동률 변수도 귀농 모형에서는 2020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귀촌 모형에서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특징임
-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비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에 비하여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가 많은 지역으로의 귀촌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통계청(2020) 보도자료에서 '귀농·귀촌 후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문화·체육서비스'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기반시설 수가 많을수록 귀촌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의 도시형 라이프스타일을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프라의 확충 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반면에 의사 수는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데,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은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들로, 귀농 모형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남
- 학생 수는 양(+)의 영향을 나타내는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 또한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들로 학생 변수 역시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들이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을 더 선호하고, 지역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표 10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의 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9년						2020년					
	Model1(M1)			Model2(M2)			Model1(M1)			Model2(M2)		
	Coef.	(S.E.)	Exp	Coef.	(S.E.)	Exp	Coef.	(S.E.)	Exp	Coef.	(S.E.)	Exp
INTERCEPT	-1.360***	0.022	0.26	-2.827***	0.073	0.06	-1.077***	0.020	0.34	-1.307***	0.065	0.27
시·도 간 이동	1.555***	0.025	4.73	1.892***	0.031	6.63	1.300***	0.022	3.67	1.793***	0.027	6.01
시·도 내 이동	0.999***	0.027	2.72	0.811***	0.034	2.25	0.832***	0.025	2.30	0.885***	0.030	2.42
학생 수				0.076***	0.003	1.08				0.037***	0.003	1.04
문화·기초시설 수				0.036***	0.002	1.04				-		
의사 수				-1.181***	0.020	0.31				-1.334***	0.020	0.26
경지면적				0.015***	0.002	1.02				-0.011***	0.001	0.99
주민등록인구				0.003***	0.000	1.00				0.003***	0.000	1.00
고용률				0.013***	0.001	1.01				0.024***	0.001	1.02
지가변동률				3.425***	0.072	30.73				0.086*	0.052	1.09
N	61,644			61,644			68,194			68,194		
-2 LL	79,957.668			65,103.860			90,394.714			75,320.992		
R-Square	0.073			0.272			0.053			0.242		

주: *: $p < .10$; **: $p < .05$; ***: $p < .01$.

출처: 저자 작성.

6) 소결

■ 시·도 간 이동을 통해 귀농·귀촌을 하는 경우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이동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비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와 비교했을 때, 시·도 간 이동으로 귀농할 확률이 시·도 내 이동 중 시·군·구 내 이동보다 11.03배 높고, 시·군·구 간 이동보다 2.81배 높으며, 지역 특성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그 차이는 더욱 커짐
- 귀촌의 경우,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는 비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와 비교했을 때, 시·도 간 이동으로 귀촌할 확률이 시·군·구 내 이동보다 3.67배 높고, 시·군·구 간 이동보다 2.30배 높으며, 마찬가지로 지역 특성 요인을 함께 고려하면 그 차이의 정도는 더욱 커짐

■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는 귀농 지역을 선택할 때, 인프라 여건상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을 선호

-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많을수록, 경지면적이 크고, 지가변동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귀농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짐
- 반면,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와 고용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의 귀농 확률이 낮아지는데, 통계자료상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은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문화기반시설 수는 많을수록 귀농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통계청(2020) 보도자료에서 귀농·귀촌 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로 문화·체육서비스를 제시했던 바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는 귀촌 지역을 선택할 때에도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 선호

-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가 적을수록,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귀촌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는 귀촌 지역을 선택할 시에도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을 선호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됨
- 귀농과 달리 경지면적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지역 전반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지가변동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귀촌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 특징임



05 결론 및 시사점

- 귀농인은 수도권보다는 전통 농업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반면, 귀촌인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
 - 그러나 수도권에 거주했던 베이비부머는 귀촌뿐만 아니라 귀농을 선택할 때에도 주로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수가 적어짐
- 생활인프라의 확충과 수도권·중심도시와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 유인 및 활성화 필요
 -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는 귀농·귀촌 지역 선택 시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도시형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질을 개선해야 함
 - 귀농의 경우 경지면적이 큰 지역일수록 귀농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귀농인의 영농 기반 마련이 용이하도록 농지 마련시 지원이 필요함
- 곧 은퇴를 맞이할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는 귀농·귀촌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서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응할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의 실마리
 - 2020년 기준 전체 귀농인 중 베이비부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4%, 전체 귀촌인 중 베이비부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6%로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의 대상으로서 상당한 가능성을 지님
 -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함으로써 그간 지방 중소도시에서 광역 대도시, 그리고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온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패턴을 다시 역순으로 회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지역여건에 따라 인구의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귀농·귀촌정책의 대상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재정립 필요
 - 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의 정책적 유인으로 청년농이 증가하였고, 1인 귀농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따라 정책 대상의 전략적 설정이 필요함



참고문헌

- 권오성·여준호. 2018. 경상북도 시군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도시민들의 귀농 유발요인 분석. 농업경영. 정책연구 45권, 438-456.
- 경북일보. 2020. '귀농 1번지 경북' 활력이 솟는다. 6월 14일.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535> (2021년 12월 12일 검색).
- 김정성·김종인. 2017. 귀농·귀촌 인구 전망과 정책 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24권, 1호: 33-48.
- 노두승·김리영·양광식. 2017. 주택하위시장 여건을 고려한 지역 간 이동 영향요인 분석. 부동산학보, 70, 192-205.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년 귀농·귀촌 인구 494,569명, 전년대비 7.4% 증가, 6월 24일.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s://www.mafra.go.kr/mafra/1388/subview.do> (2021년 12월 20일 검색).
- 마강래. 2020.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원주: 개마고원.
- 박기서·정일훈. 2012. 귀촌 도시민의 선호지역과 결정요인. 주거환경 10권, 2호: 91-105.
- 박소현·이금숙. 2019. 이동요인별 시·공간적 인구이동 특성을 고려한 인구분포 예측: 마르코프 연쇄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권 3호: 351-365.
- 박시현·최용욱. 2014.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은열·문채. 2016. 지역인구이동 변화에 미치는 결정요인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9권, 4호: 67-92.
- 우성호·이성근. 2015. 귀농·귀촌의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경상북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2권, 2호: 101-116.
- 윤영중·박환용. 2019. 베이비부머 은퇴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0권, 4호: 85-94.
- 이정희·이창수·이상경. 2017. 수도권 도시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전입률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권, 3호: 141-150.
- 임동일·황윤진. 2017. 사회 및 환경적 요인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효과: 수도권으로부터 강원도로의 인구이동 동인(動因)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49권, 1호: 1-31.
- 송미령·성주인·김광선·정도채·한이철. 2020. 귀농·귀촌 인구이동 동향과 시사점 -2019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중심으로, KREI 농정포커스 제194호.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성지·마상진. 2021.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적응, 무엇이 결정하는가? -귀농·귀촌 동기과 직업만족을 중심으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3권, 1호: 1-27.
- 조미현·송재민. 2020. 서울 대도시권의 1인 가구 주거이동 및 유입지역 특성 분석: 직업과 주택 요인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Vol 55권, 4호: 70-84.
- 최원실·허태호·이상현. 2020. 역 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경제 43권, 3호: 65-90.
- 통계청. 2020. 2019년 귀농어·귀촌인통계. 6월 24일, 보도자료.

_____. 2021. 2020년 귀농어·귀촌인통계. 6월 24일, 보도자료.

_____. 귀농어귀촌인통계. <https://mdis.kostat.go.kr/infoData/detailData.do?statsConfmNo=930002&nPage=10>
(2021년 12월 12일 검색).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19.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정보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2020.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순유입 인구 2배 이상 증가, 7월 7일. 보도자료.

부록

표 2019년 귀농 변수의 기초통계량

Variables		Obs	Mean	(S.D.)	Min.	Max.	
이전 거주지역		5,456	0.453	0.498	0.0	1.0	
이동 유형	시·도 간 이동	5,456	0.736	0.441	0.0	1.0	
	시·도 내 이동	시·군·구 간 이동	5,456	0.187	0.390	0.0	1.0
		시·군·구 내 이동	5,456	0.076	0.266	0.0	1.0
학생		5,456	11.078	4.372	4.2	24.7	
문화기반시설		5,456	14.746	9.272	2.6	74.1	
의사		5,456	2.092	0.654	1.0	7.0	
경지면적		5,456	12.482	6.353	0.0	33.8	
주민등록인구		5,456	144.145	188.462	9.6	1059.6	
고용률		5,456	63.788	12.000	0.0	84.6	
지가변동률		5,456	0.181	0.131	-0.4	0.6	

출처: 저자 작성.

표 2020년 귀농 변수의 기초통계량

Variables		Obs	Mean	(S.D.)	Min.	Max.	
이전 거주지역		6,002	0.441	0.497	0.0	1.0	
이동 유형	시·도 간 이동	6,002	0.721	0.448	0.0	1.0	
	시·도 내 이동	시·군·구 간 이동	6,002	0.197	0.398	0.0	1.0
		시·군·구 내 이동	6,002	0.082	0.274	0.0	1.0
학생		6,002	10.742	4.287	4.0	24.6	
의사		6,002	2.126	0.679	1.0	7.0	
경지면적		6,002	12.535	6.288	0.0	33.6	
주민등록인구		6,002	141.022	187.550	9.1	1074.2	
고용률		6,002	63.630	10.797	0.0	83.0	
지가변동률		6,002	0.232	0.136	0.0	1.6	

출처: 저자 작성.

표 2019년 귀촌 변수의 기초통계량

Variables		Obs	Mean	(S.D.)	Min.	Max.	
이전 거주지역		61,644	0.442	0.497	0.0	1.0	
이동 유형	시·도 간 이동	61,644	0.533	0.499	0.0	1.0	
	시·도 내 이동	시·군·구 간 이동	61,644	0.265	0.441	0.0	1.0
		시·군·구 내 이동	61,644	0.203	0.402	0.0	1.0
	학생		61,644	13.620	4.127	4.2	24.7
문화기반시설		61,644	10.546	8.617	2.6	74.1	
의사		61,644	2.029	0.669	1.0	7.0	
경지면적		61,644	11.073	6.720	0.0	33.8	
주민등록인구		61,644	265.207	251.389	9.6	1059.6	
고용률		61,644	58.227	17.729	0.0	84.6	
지가변동률		61,644	0.191	0.162	-0.4	0.6	

출처: 저자 작성.

표 2020년 귀촌 변수의 기초통계량

Variables		Obs	Mean	(S.D.)	Min.	Max.	
이전 거주지역		68,194	0.464	0.499	0.0	1.0	
이동 유형	시·도 간 이동	68,194	0.525	0.499	0.0	1.0	
	시·도 내 이동	시·군·구 간 이동	68,194	0.276	0.447	0.0	1.0
		시·군·구 내 이동	68,194	0.198	0.399	0.0	1.0
	학생		68,194	13.331	4.020	4.0	24.6
의사		68,194	2.052	0.671	1.0	7.0	
경지면적		68,194	10.928	6.749	0.0	33.6	
주민등록인구		68,194	273.628	256.959	9.1	1074.2	
고용률		68,194	57.159	17.383	0.0	83.0	
지가변동률		68,194	0.261	0.176	0.0	1.6	

출처: 저자 작성.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국토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국내외 사례 연구나 비교연구, 창의적 제안 등 국토분야 이론과 정책에 도움이 될 어떠한 연구도 환영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044-960-0582, jhkim@krihs.re.kr)으로 연락주시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WP 21-27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 특성 분석

연 구 진 이혜민
발 행 일 2021년 12월 31일
발 행 인 강현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2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